전남 농산물 연 300만 달러 싱가포르 수출 교두보

도, LNC와 수출 확대 MOU
내달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
"우수 농수산식품 적극 홍보"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퓨라마 시티 센터에서 열린 싱가포르 시장개척 수출상담회에서 한국식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싱가포르에 공급체인을 확보한 LNC사와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싱가포르에 연간 300만 달러 규모의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가능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21일(현지 시각) 현지 한국 식품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LNC 이종근 대표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NC는 전남산 우수 농수산식품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적극 홍보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싱가포르 수출 확대를 이끌게 된다.

LNC는 이종근 대표가 2009년 싱가포르에 설립했으며 현지 식당 200여 곳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또 한국식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오케이식품'을 비롯해 'LEE마트', 한국식반찬 전문점 '찬찬찬'과 한국형 분식집 '원더풀 밥상'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 1억5000만달러를 달성하는 한국산 식품 전문 수입·유통기업이다.

이종근 대표는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가 혼재한 다민족 국가이면서, 전체 인구의 약 30%가 외국인으로 외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높다"며 "전남도와 적극적인 협업은 물론 LNC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전남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LNC가 가지고 있는 식품 유통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우수한 전남 농수산식품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음식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LNC와 함께 남도음식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내달 25~28일 4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에 전남을 대표하는 김·김치·유자·천일염·녹차·장류·한식육수·오징어스낵 등을 생산하는 8개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전남도 식품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수출 브랜드인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통합부스를 설치해 전남 수출기업의 전시·상담 공간을 운영하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남도음식'을 홍보해 세계 식품시장에서 전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의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광주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광주·전남 선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는다.

김나윤(사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전남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며 "인공지능(AI)·자동차·전력·부지확장·균형성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지역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강수훈 시의원 "양동시장역 승강기 설치 본회의 통과"

광주지역 19개 도시철도 역사 중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양동시장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시화됐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용역비 1억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용역은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내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서구1·사진)은 "양동시장역은 서구장애인복지관을 맞은 편에 둬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다"며 "대통령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이 찾는 곳이지만, 아무도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과 안전 문제는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다"며 "20년 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설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채은지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환경 힘써야"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질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사진)은 22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광주시 공무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공무원은 56.1%로 절반 이상이며, 부당한 지시를 당한 공무원(23.7%)이 가장 많고, 언어폭력(20.7%), 따돌림·차별대우(2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담 부서·인력 조정 △갑질 피해 신고 센터에 대한 신뢰 구축과 홍보 △가해자 엄중 처벌 원칙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해나 기자

강기정 시장, 국회 찾아가 '군공항 이전' 광폭 행보

김진표 의장·여야 원내대표 방문
박홍근·주호영 등에 명예시민증

강기정 광주시장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강 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오는 4월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 등을 만나 "광주군공항특별법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와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많은 시민이 오랜시간 기다려온 군공항이전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추진 중인 광주군공항특별법도 4월 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공항이전사업을 임기 내 매듭 짓겠다고 약속한 만큼 추진위·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민 염원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지역현안과 군공항이전 특별법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 제공

강 시장은 이날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국회의원을 명예시민으로 선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 광주시민으로 선정된 국회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예산안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기획용역비와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 용역비,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등 광주시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광주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과 주요 기관장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2명의 명예시민을 위촉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취약계층 지원 등
5월12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12일까지로 전남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도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공모 제안서는 전남도청 도민동 3층 고향사랑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7월께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공모에 선정된 제안자에겐 온누리 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지급된다.

오종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소중한 기부금이 도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디.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전남도는 기부금 답례품으로 전남의 매력이 담긴 여수 갓김치, 나주배, 영광 굴비 등 다양한 농수축산 특산품을 비롯해 천연염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체험·관광상품을 증정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